

THE HEE M

金庸



5月號

(1955)



『우리가 죄송합니다. 맘을 아프

김매위는 구제주야. 구제주

하고 부르짖었다.

『주임집에 가서
잘았어요。영동지서
편안히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가 있게 됐을까? 옆

는데..... 영통서 주여구 뜻감이랑 산는데 엄마가 아란이

김대위에게 라기보다 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어린 것은 충청북도 영동(漁洞)에
때에서 탔던 차를 놓쳐 버렸더니

무련
사고
없이
그날
저녁
으로
여이

現代小說

獨秀山記

熙 貞 崔 李 舜 在 畵

崔 貞 熙
李 舜 在 畵

(永同支署)에 어린 것을 데리고 갔다. 남학 생은 어린 것을 영동지서에 말했던 것이다. 영동지서에선 어린 것을 엄마가 갔다는 방 향을 얼마 쫓게 하려고 추억에 대웠다. 운전수는 세우며 안가서 서울로 올라가는 추억을 불러 호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 받은 운전수는 부탁하는 운전수에게 서울에 다시 들어가면 폭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 남쪽으로 그냥 데리고 가라고 했다. 부탁하는 운전수는 그것도 이미다가 부산 갔는지 가라는 말이냐고 모른다는지 어디로 데리고 했다. 어린 것은 또 울기 시작했다. 부탁 받은 운전수가 「포켓」에서 껌을 깨내 했다. 어린 것의 입에 집어 넣더니 운전수는 그대로 말하고 했다. 어린 것은 또 울기 시작했다. 부탁하는 운전수가 어린 것을 안아 서울 갔다는 비인 추억 운전대에 대워 주었다. 차가 움직이자 운전수는 어린 것에게 물었다. 어린 가겠느냐? 서울에 가겠느냐? 고영 동지서에 가는 바엔 할머니가 계신 것이다. 서운에 가겠느라 고대답 했다. 서운엔 할머니가 계신 것이다. 엄마를 품었던 한데 것이다. 그러나 운전수는 또 엄마를 못가서 가던 것이다. 꿀내 영동지서에 손수건을

남편과 어린것을 잃게된 六·一五의 참화 . 다
시 생생한 기억의 눈물과 죄에 젖은 죄난길!

부인은 생각해 냈다. 이 부인은 여섯식
을 헤아리지 않고 일어 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혜미는 것이었다. 남편은 육·이오 때 남자
되어 갔다는 것이었다. 밤낮을 헤아리지 않아
고 일어버린 아들을 찾으려 다니는 사이에
이 부인은 사변통에 생전 온갖 비극적인
이야기를 얼어 듣곤 했다. 그는 자기의 비극적인 일



문파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다. 내일 아침 경향신문! 하는 소리가 그중
또렷이 들렸던 것이다. 대구에 피난 내려온
오직 하나의 중앙지(中央紙)라 말가위서 그

떻게
들렸던지 모른다.
「신문은 아무나 파는 줄 알아?」
「시험을 치시 물어야 할까? 개들이 다
시 향에 불은 예들이야?」

○ 아이들 학교의 여름 방학이 되자 아이들은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一九五三年
 여름이었다. 혼자 남은 늘은 어머니를 생각
 해 서 남 보다 먼저 피난지를 떠났던 것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배구 말을 쳤다. 학교에 가서도
손색 없이 사투리를 썼다.
「손톱을 안 깎까야 제?」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온체 짹짜암니더어.」
 매달 하는 것이었다.

도장증이(渡江證)이 있어야 서울에 들어오
는 데 있다. 공무로 다니는 외엔 도장을 금
지했던 것이다.

내 아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한강(漢江)이 가까워지자 열차 속에선 은
갖 연극이 벌어졌다. 자티 밀에 물어가는
사람, 들어 잔 뒤에 점으로 막아 주는 사
람, 안절부절 못해서 있다갔다 하는 사람,
승무원 헌병 이동경찰을 포함함 | 에게 어
떻게 해 보려고 둘 낙거리는 사람, 모두 제
얼굴 빛을 잃고 있었다.

도장증은 미군이 검증했다. 말이나 서로
나들이나 서로

통진다면 좀 어떻게 해 볼 용기도 나겠으
나들이나 서로

이제는 통치 못하고 보니 도장증을 빠짓
통치 못하고 보니 도장증을 빠짓

이다. 원병 둘째 우리 통역(현병)한 사람 셋이었
경증은 영동포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미군
성이 이다. 이病 둘째 우리 통역(현병)한 사람 셋이었
교 안아는 둘째 우리 통역(현병)한 사람 셋이었
를었다. 어린 것은 앞, 뒷지 오면 어머니 않우네서

나만해도 원통하구 억울하구 불해 죽겠는
데.... 내 나라 땅, 간대 마다 왜 이
금을 거놓구 막으며 야단이오.」
이 말도 소용 없었다. 여인도 내렸다. 기
차에는 여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다. 「오늘은 안되는군. 번번히 잘 통과되더
니....」
하고 말했다. 여인은 부산 서울을 드나들어
장사를 치다니 것이었다. 우디 차례에 이르렀다. 별색 부려 떨고 있
던 아이들이 올자고 했다. 윤디 선 안되겠
다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인데 우디집에 가



Soon

는 걸이라고 나는 어느 새 영어로 했
다. 「굿타이」나 「준모오닝」 소리도 제
면적어서 못해 내던 내가 어떻게 이 먼
길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충제도 모르겠지
다면 말을 알고 있었든지 모르겠지

미군 물이 좋다면서 고개를 깨덕
여 주었다. 나는 고개를 약간 돌려 물고
주위를 살폈다. 배 영어를 알아
은 사람이 없나해서 고개를 많이 많이
돌렸을까?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 전선에 베
들이 솟았다. 아이들은 좋아서 머드는
걸 즐기는 데 두시간 이상을 끌고
나니 집에 도착한 시차은 방듯어서
있다.

아이들은 삼년동안이나 걸지 않던
걸이 전만 어둠을 뚫으며 올리막 길
을 떠들었다. 물이 커져 있는 걸
걸은 없었다.

「할머니!」
아이 물이 소리를 잘이 해 놀렸
다. 대답이 없었다. 물이 커져 있지
않았다. 물이 커져 있지 않다.
「어머니!」
「할머니!」

더 크게 불렀다. 대문을 두다니기
지도 했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
지 모르나 나는 불안한 예감에
숨이 헛졌다. 더 크게 부르며 두다니가
혔다. 미닫이, 이는 소리가 들리고 마두
문에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위기 왔너!」

하는 소리 같아 동시에 보다 먼저였을 것이다.
「할머니!」「어머니!」를 연발했다.
「에구 이게 어쩐 일이냐? 너어 왔느냐?
너어 왔구나.」
어머니 말소리는 편였다.
「할머니 천천히 나와 넘어져…….」
아이들로 할머니의 바쁜 마음을 알아채었
아이들로 할머니의 바쁜 마음을 알아채었
나 보았다. 방에 들어 왔다.
「분을 켜야 하겠구나.」 너이들이 얼마나 커는
가?…….
아이들과 맞불잡았던 손을 놓고 어머니는
성냥을 찾았다. 아래 웃음을 헤매었다. 어디
놓은 것을 모르시는 모양이었다.
「분을 걸때 어디서 봤을세.」 너이들이 잔
분이라구 언제 키 뒤에 한번인가 두번 켜 보군 늘 카카나
라지.」
「분을 안켜구 어떻게 어둔데서…….」
나는 석유가 없어서 못 천줄을 알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옥수수 뒤기 장사랑 양탕
빼 장사를 해서 깨너를 이어 갔던 것이므로
그려나 어머니는 밖에서 젖이 원통 들여다
분을 켜니까 보는것 같아서 한번인가 두번 켰다가 그
만두죽았니.」
하시느 것이었다.
분이 켜지자 어머니는 눈을 이리 셋고 저
마침으며 어린것들을 들여다 보시며 날저
보시며 들어 보시며 했다.
하시느 것이었다.
「다시.」 못불줄 알았더니 죽잡아서 보는
주나 에구에구 내누깔풀이…….」
어머니는 웃는지 우시는지 분간할 수 없
는 소리로 말씀 했다.
호통불이 차차 커져 잤다. 아이들이 방안
두루 살폈다.

내 책상은 어더 갔어? 간다.
인민군들이 가져 갔어요? 할머니?
여기 있다가 이사갈때 모두 함께 실무
가더라. 그것뿐이겠니 다 가져가구 아무것
부없다. 인민군이 가져가구 남은건 통회
에서 왔느라고 하구 가져가구 경찰서에서 왔
느라구 하구 가져가구....
「동회랑 경찰서에선 왜 가져가요?」
「인민군이 들어있던 집이니까 인민군들께
라구 가져갔다. 인민군들이 들어있든 집은
다 가져가더라.」
「아파 아파 애구 아파.」
어거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적은 것
이런 절박한 소리가 통뒤에서 걸렸다.
나간 장농 속에 들어온 모자를 어느새 보았던
것은 문짝이 떨어져 나간 장농 속에 들어온
아빠의 모자를 어느새 보았던 것.
다침집을 들여다보니 그가 거기 놀랐다. 푸그가 거기
나도 짬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간 장농 속에 들어온 모자를 어느새 보았던 것.
나간 장농 속에 들어온 모자는 그동안
나간 배가 고팠느라고 했다. 모자는 그동
안 족적이 푸서웠느라고 했다.
처음엔 머얼머얼 만하더니 차츰 따르게
크게 하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나를 가만
있게 못했다.
모자는 그동안 외로웠느라고 했다. 모자는
동안 배가 고팠느라고 했다. 모자는 그동
안 족적이 푸서웠느라고 했다.
나는 물을 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것이 이제우는 대로 따라다니며 피시
기 넘겨다 보면 큰 것도 어느새 울고 있었
었다.
「누워 자자. 끈하니까 예전 옆하구....
나는 물을 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것이 이제우는 대로 따라다니며 피시
기 넘겨다 보면 큰 것도 어느새 울고 있었
었다.」

작이 잠이 영감이 좀체 이나 해. 누워서 할머니 애진 들판에 풀을 었다. 출풀은 것 같지 않던 이이들은 이어 풀이 죽이며 오는 것 같아서 잠이 들었다. 그동안 아누단 나무를 희다 베엿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장해도 받지 않고 화안이 좋았던 속에 누워 있느니고 했다. 그는 말이 저렇게 좋은데 비희어 때문이었다. 모자는 말이 힘절해졌다. 그것들을 넘어서 기까지는 밤이 면 명절 같다고 했다. 아카시아 이풀에게까지 탄을 방식이 속해야 하건만 아이풀에게까지 전장을 찾았다. 내가 재우자고 했더니 우겼다. 주장하면서 우쳤다. 그모든 것은 그모든 것이다. 그모든 것이다. 그모든 것이다.